

계간 차 201512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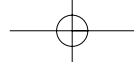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조근호 작, 도시의 창 162×130.3, oil on canvas, 2015

전북 순창 태생 조근호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17회의 개인전과 뉴욕 아트 엑스포와 북경 아트페어 등 홍콩 컨템포러리 아트페어 2009(주비엔날레 주재진보전시) 등에 참여 서울, 광주, 전주, 양평 등 활발한 전시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고히 다져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광주시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전라북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역임 2009년 제 5회 광주 신세계 미술상을 수상 현재 한국미술 광주광역시회 부회장, 선곡석 및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여는 시 화정동의 저녁노을	문병란
2	'창'을 열며 기록과 역사의 진보	이연수
3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지상중계 1 세션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 2 세션 조성사업과 광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18	추모특집 문병란 시인의 생애와 詩 - 암울한 시대,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민중시인	김정희
20	문화인 탐구생활_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 문화예술교육, "사람"이 답이다!	편집부
22	문화진단 광주의 광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늘의 평안한 문'에서 (Gate of Heavenly Peace) 앞의 광장	정인서 김하림
26	문화현장 학동 백화마을 그리고 광주백범기념관	장선미
28	문화청년그룹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청년성장공동체, 아모탁협동조합	추민수
30	문화특독 뽀뽀폴리? 도덕성은 바탕과 뿌리의 문제다	천의영 박신영
34	이생각 저생각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염원하며 광주 구성로 답사기	성진기 이춘배
38	재단·회원 소식·임원현황	편집부
48	편집후기	



'창'을 열며

기록과 역사의 진보

이연수_ 호남대 교수, 재단 이사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유한다. BC 1,000년경에 말을 글자라는 기호로 적게 되면서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온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그림문자, 설형문자, 상형문자가 있었으나 말의 뜻을 정확히 약속된 부호로 적는 글은 BC 1,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역사나 고급정보가 글로 기록됐고, 약속된 글을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지배계층이 정보를 독점했고, 대다수는 글을 알지 못한 문맹이었다. 정보 취득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배계층으로의 진입을 막았으며 특히 여성들 대부분은 피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다.

1455년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이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라틴어로 된 성경의 번역과 출판이었고, 성경의 말씀이 성직자의 독점물에서 대중화되면서 종교개혁, 르네상스가 이루어졌다. 글이 정보의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서 이제 는 디지털언어로 저장되고 기록되고 있는 시대로 진화했다. 불과 20년 만에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다. 쉽고 편리하며 저장방식의 편의성 때문이다. 지금은 디지털시대이다. 모든 정보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수치로 저장되고 보관된다. 저장공간 크기의 단위는 '바이트' 이고, 지금은 휴대용 외장하드의 저장공간이 테라급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테라 : 1조 바이트)

디지털로 기록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모든 자료의 복사 번조가 가능하고, 거의 무한대의 정보가 쌓여가고 있다. 1989년 월드와이드웹(WWW)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환경이 문자 중심에서 그래픽 환경으로 바뀌었으며, 촘촘한 정보 그물망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쉽사리 지구촌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와 내가

족이 아니어도 예전의 이웃사촌처럼 손가락 몇 개까지 셀 수 있을 정도이다.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매스미디어 시대가 구텐베르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듯이 이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로 구분된다. 영상 이미지는 디지털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번조 저장 전송이 거의 무한대로 자유롭다. 인터넷 정보의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의존한 기사쓰기 등도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빅브라더의 시대로 일컬어지듯 위험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나의 금융거래, 나의 하루 일과가 동선과 시간대별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실시간으로 스캔되고 있다. 사생활은 어디에도 없다. 손톱크기의 몰래카메라로 HD급 고해상도로 사생활이 들추어지고, 남의 신체를 엿보는 동영상이 유포되는가 하면 거리 곳곳의 CCTV를 피하는 방법은 없다. 아울러 디지털이 새로운 예술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이남의 미디어아트, 테크노아트, 움직이는 미술관 등 3D입체 영상과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점의 나열식 전시나 공연에서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손편지와 이메일로 안부를 전하는 시대에 동영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인사를 대신한다. 해남 현산면에서는 시골 농부들이 추석 때를 맞아 자식들에게 환영의 동영상을 제작 메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의 모두가 생산자이고 소비자이다. 공공의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방종이 아니고 책임과 도덕률이 따를 때 진보한다. 디지털 민주주의 책임과 도덕률을 생각할 때이다. ☞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 일시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 장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다목적강당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 주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 협회
- 후원 광주광역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 드디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1월 25일 정식 개관하여 그 웅장한 모습을 국내외에 드러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견인할 전당의 개관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 뿐만 아니라 우려의 마음도 크다. 아무래도 지난 1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당에 대한 애증의 표현일 것이다.

이제 전당의 활성화 여부는 조성사업의 성공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정부의 책임 못지않게 지역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일에 개최된 지역문화포럼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전당의 미래를 조망해보고, 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이었다. 그 내용을 지상중계를 통해 소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프로그램

사회 송진희(호남대 교수)

1 세션_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

- 발표 이승권(조선대 교수)
- 지정토론 김병석(아시아문화원장)
- 라운드테이블 토론
 - 전당 각 원별 평가 및 제언
 - 〈예술극장〉 정순기(광주시연극협회장)
 - 〈민주평화교류원〉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어린이문화원〉 주홍(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문화창조원〉 민인철(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문화정보원〉 황병하(조선대 교수)
 - 조직과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김도일(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시민문화교류위원장)
 - 지역 문화계와의 연계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박선정(광주대 겸임교수)
 - 전당의 접근권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유현섭(국립아시아문화전당접근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 세션_ 조성사업과 광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 발표 천득염(전남대 교수)
- 지정토론 김일용(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 라운드테이블 토론
 - 문화예술 윤만식(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 청년문화 윤현석((주)컬처네트워크 대표)
 - 문화정책 선재규(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문화관광 강성욱(광주관광컨벤션부로 사무처장)
 - 문화기획 전고필(전대인예술시장 감독)
 - 도시환경 정성구(주)도시문화집단지CS 대표)
 - 문화산업 고미아(주)위치스 대표)
 - 광주시의회 임택(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장)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1 Session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

발표자 이승권_조선대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광주의 문화적 자산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 건설되었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도시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동력으로, 문화전당이 7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경우 광주가 국제적인 문화·창조도시로 변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광주시민에게 시민의 창조성과 문화적 역량을 배양하는 학습공간으로써 활용될 것이며,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은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도 논의 중인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위상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전당과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긴장 내지는 갈등관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문화전당의 발전이나 지역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협력 보다는 발전적 긴장관계가 유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논의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문화전당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반대로 지역 문화·예술계는 문화전당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전당을 광주비엔날레와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광주비엔날레가 지역의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처럼, 문화전당도 지역 미술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예고된 불행’ 보다는 ‘예고된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화전당의 개관과 관련해서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전당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문화전당의 접근성은 도시 공간, 즉 교통의 측면과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후자, 즉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향유자(소극적 소비자)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창·제작자(적극적 소비자 또는 생산자)측면에서 볼 것이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콘텐츠에 대한 논쟁은 향유자(소극적 소비자)측면에서 문화전당의 콘텐츠가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측면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다.

먼저, 향유자 측면에서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접근할 경우, 문화·예술계의 오랜 논쟁 중의 하나인 예술성과 대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문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표현하면 ‘예술가의 창작영역’이다. 문화·예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중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예술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대중적 성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문제는 작품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콘텐츠 논쟁은, 예술성, 즉 전위적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을 추구할 것이냐! 추구하지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예술이 문화전당의 정체성과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이 문화전당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동시대 예술의 창·제작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시설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 지향적인 복합문화시설과 내용적 지향적인 동시대 예술의 불일치 현상, 즉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는 현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문화전당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콘텐츠의 적합성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전당의 정체성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문화전당의 정체성 수립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것이며, 문화전당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재정비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문화전당의 활성화 방안 또한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이 확보된 후,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 이유는 복합문화시설의 활성화방안과 예술의 창·제작 공간의 활성화방안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향유자측면이 아닌 창·제작(생산자 또는 적극적 소비자)측면에서 문화전당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접근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전당의 5개월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요소의 발굴을 목표로 5대 영역(스토리/신화·설화,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의 아시아문화자원을 조사·수집하여 아카이브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앞으로는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겠지만 현재는 접근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전당의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가 향유의 대상이건 창·제작의 자율성이건 다소의 문제점이 존재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처럼 일부 기관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개인의 작업실을 구축하기보다는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콘텐츠 제작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법정계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이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자체에 모순이 존재할 경우에는 종합계획 자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2023년까지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을 활성화시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이 초기의 종합계획에 제시된 대로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또 다른 계획이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되었고 이러한 자리도 마련된 것이겠지만, 이곳에서 실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수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발제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한 문제는 지역의 역량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역량과 리더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최초에 의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1 Session 지정토론

토론자 김병석_아시아문화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를 문화도시로 바꾸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문화의 고부가가치적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특성을 활용하고 문화를 도시발전과 연계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불기 시작된 창조경제는 물론 문화를 통해 도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걸쳐노믹스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문화전당이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했다. 2004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문을 여는 문화전당은 광주가 21세기 문화를 리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옛 전남도청 일대는 장소와 기억의 상징성이 강한 곳이다. 광주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옛 전남도청 일대에 문화전당이 건립-운영 측면에서 '전당 개관을 계기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도시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문화전당은 문화예술기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발전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체 부지면적은 13만 4815㎡(연면적 16만 1237㎡)로 서울 예술의전당 보다 넓다. 아시아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 역할을 할 문화전당에는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 원이 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교류의 거점이자 문화자원 연구·교육·창작 제작·전시·공연·유통 등을 수행하는 아시아 대표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역할 및 자리매김 해야 한다.

이 같은 문화전당의 10대 핵심 과제는 •아시아문화교류 및 창조의 플랫폼 '국가브랜드 기관' •창·제작 중심의 국제예술 기관 '창조경제 건인' •지역경제·문화융성의 거점 등 3대 운영 목표를 토대로 구체화 된다. 주요 과제는 •아시아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교류의 장 •아시아 문화연구 및 담론 생산의 장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문화융성 기여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복합 콘텐츠의 산실 •기획·창제작·시현에 이르는 콘텐츠 산업 구현 등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팩토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경영 모델 확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관광명소로서의 장소마케팅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활용 및 육성 등도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문화전당이 기획공연과 대관 중심의 서울 예술의전당과 다른 대표적 사례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창작·제작 및 구현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랩(LAB) 기반의 창·제작 공간을 뒤 인문학·예술·과학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융·복합 콘텐츠로 생산할 계획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 각국을 잇는 '문화 브리지' 역할도 맡는다. 내년 6월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문화장관회의가 열리며 세계문화포럼(WCF) 개최도 추진 중이다. 아시아문화·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문화·가치와 전통을 재발견하고 확산해 아시아 문화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문화교류·협력 사업 강화로 문화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발전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아시아의 전체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ACC(Asia Culture Center)가 'Collision to Collaboration' 과 'Communal Communication' 을 통해 광주 발전과 문화융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복합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원부터 뛰겠다. ♪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예술극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정순기_광주시연극협회장

아시아문화예술극장 1,120석 규모 가변형 극장으로 철재구분선이 실제 극장을 나눌 수 있는 파티션 국내의 공동제작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을 체험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동시대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게 동시대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인하고 싶다.



예술극장 내부 공연장에 공연관람을 위해 좌석에 착석해 본 결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좌석의 불편함으로 관람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관람석의 사석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변형으로 극장을 변형했을 때 내부 공연과 외부 공연의 셋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광장에서 공연행사가 있을 때는 방음진동으로 내부공연이 어렵기에 내부, 외부 동시공연은 불가능하다. 또한 예술극장은 스템에 대한 배려도 없다. 세트 반입구 문제부터 공연자를 위한 극장이 아니면 관람객을 위한 극장도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극장을 만들 때에는 공연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의 공연장 설계에는 미화적인 개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연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지어줘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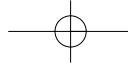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김기곤_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주평화교류원(이하 교류원)은 문화전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핵심공간으로 크게 두 가지 시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는 '문화교류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창단 아시아 이야기 축제, 문화분야 공적개발 원조(ODA) 등 아시아 각 국가 및 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다른 하나는 '5·18민주평화기념관'을 중심으로 5·18상설전시('열흘간의 나비떼')가 이루어진다. 기념관 이외에 '러닝센터'를 통해 민주·인권·평화로 특화된 교육 및 연구 등의 기능을 구상하고 있지만 문화전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러닝센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교류원 내부에서 두 시설 간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교류협력센터의 교류 협력은 문화전당의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교류이지, 보편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류원 차원의 교류'는 담겨 있지 않다. 교류원이 문화전당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는 점에서, 교류협력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교류원이 전시 기능을 넘어 보편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교류원은 인문가치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전당을 지탱하는 핵심가치를 확산하는 생동하는 '연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실천 주체와 자원들을 연결해 보편가치를 현재화하려는 다양한 실험과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가동해야 한다. ♪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어린이문화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주 흥_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어린이문화원은 가족단위로 찾는 공간으로 테마가 있는 전시와 도서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의 공연들, 다양한 방식의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어린이 문화원은 어린이 박물관이나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파티가 열리는 곳이어야 한다. 외부의 아티스트들, 문화전당 상주작가 프로그램이나 창조원의 작가들과 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기발한 작가들의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가족 파티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적 놀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술적 재능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당에서 최고의 예술가 멘토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전당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과 광주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사랑과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재능 있는 예술가가 광주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정적 지원해야 한다. 전당의 콘텐츠는 재능 있는 인적 자원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창조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민인철_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화전당에 문화콘텐츠 창 제작 및 구현 시스템을 갖추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향후 창 제작센터에서 제작될 융복합콘텐츠 장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창조원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전시가 계획된 장르가 대부분 특정 시각예술(미디어아트) 위주로 실제 문화콘텐츠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르를 뛰어넘는 융복합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실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데 있어 문화창조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창조원의 창 제작센터에서 진행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프로젝트에 지역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게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체험형 융복합콘텐츠가 문화콘텐츠산업의 미래형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해 창조원의 콘텐츠 장르를 체험형 융복합콘텐츠 장르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은 광주시의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조원과 지역콘텐츠산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게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체험형 융복합콘텐츠 제작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정보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황병하_조선대 교수

문화정보원은 다양한 아시아문화의 연구, 보존, 가치 확산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아시아문화의 발전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화정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에 대한 수집, 분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 분류, 연구,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문화정보원이 자료 수집 대상과 수집한 자료의 저장 및 활용 방법을 조속히 정하는 일이다. 아시아문화의 자료 수집, 분석, 연구를 위한 IT이 각 권역별로 조속히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얻어야 한다. 향후 문화전당의 성패는 가치 있고 대중적인 아시아문화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 결과물의 음악, 미술, 공연, 전시 등에 콘텐츠로 활용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좌우될 것이다.



문화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 자원의 수집, 분석, 연구, 보관, 제공 기능이 정상화되어 정보원이 전당의 문화발전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정보원과 지역 전문가 및 대학들과의 소통과 대화, 정보와 시스템의 공유, 분업화와 협업을 통한 상생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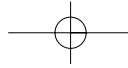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조직과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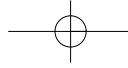
토론자 김도일_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시민문화교류위원장

문체부는 2014년 8월 사업부(divisional) 형태로 전당 조직을 설계한 <전당 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조직을 6본부 4예술감독 1연구소 2센터 2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업부 형태의 조직안이 전당의 운영전략인 5개원의 연계·순환전략에 적합한 조직기구인가이다. 독립된 구조로 보이는 각 원간의 사업수행이나 기능개발을 위한 조직의 교차기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당의 중요한 운영전략은 전당의 5개원의 독자성(창조, 교류, 향유, 연구, 교육)은 확보하되, 상호 연계·순환의 재생산 구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당의 연계·순환 구조시스템의 창작사례로써 비정형 복합창작물 <리아우(RIAUI)> 제시, <리아우(RIAUI)>의 공동창작은 정보원의 자료 수집 및 가공, 교류원의 레지던시를 통한 아시아예술극장과의 협업, 예술극장에서의 공연을 통한 아시아의 가치공유, 운영본부의 콘텐츠 확대와 활성화 지원, 창조원의 다양한 콘텐츠 지원 등을 실행하여 전당 5개원의 핵심시설과 기관들의 연계와 순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전당의 조직설계는 <리아우(RIAUI)>와 같은 창작과 제작·유통이 이루어지는 구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지역문화계와 연계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박선정_광주대 겸임교수

현재 대부분의 지역 예술인들은 전당 콘텐츠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상호간 신뢰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동안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지역예술인들을 초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사실이다. 지역과의 소통이란 하나의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당과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연계는 우선적으로 신뢰관계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바탕 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예술인들과 협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전당의 5개 광장을 비롯한 야외공간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오픈 스테이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전당 주변지역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의 빈 건물이나 빈 점포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기획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전당의 접근권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론자 유현섭_문화전당접근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으로 본 문화전당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출입문·엘리베이터 등 건물 간 이동성, 장실·관람석 등의 편리성, 화재·응급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대피시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한 마디로 2015년에 완공된 건물이라 말할 수 없고, 적어도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8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기본이 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 된 현재 최소한의 법적 요구를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현재 문화전당이다.

문화전당 현장 점검을 토대로 한 개선 요구에 대해 문화전당측은 6월 12일 편의시설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내왔다. 이동약자 편의시설 개선요구에 대해 문화전당측은 대부분 개관 이전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각 건물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문을 설치하라는 요구에 '예술극장, 창조원 로비 입구, 교류원 입구'는 2016년 이후 개선, 더불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화장실 내 응급벨 또는 긴급전화 설치 또한 2016년 이후 개선하겠다고 한다. 아시아를 향해 열려있다는 전당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게는 철저히 닫혀 있다. 이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지길 바란다.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2 Session 조성사업과 광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발표자 전득연_전남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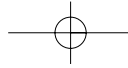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물리적 공간으로는 광주에 머물지만, 과업의 명제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포괄하는 거대사업이며 시간적으로는 일차적으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장기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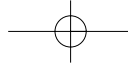
건국 이래 국가가 주도하는 가장 큰 문화프로젝트, 광주사회에 던져진 소위 '문화도시'라는 거대한 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동안 중앙이나 지방이나, 순수(문예)나 현실(산업)이나, 운동적 선명성이나 관제기관이나, 포섭·편승이나 배제나, 부처 현안사업이나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나, 외부적으로 주어졌던 것이나 자생적인 것이나, 지상이나 지하나, 랜드마크가 되는가, 문화향유시설을 늘려야 한다. 그래도 기대해 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등 정말 말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은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광주의 이름과 도시가 지니는 문제점들을 총괄한 조성사업의 종합계획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서 확정함으로써 이 논란은 일단은 종결된 듯하였다.(김영기, 2007, 11)

그러나 이후에도 광주라는 공동체 공간에 도시적 랜드마크 기대, 공연장의 필요, 전당의 운영체계, 문화전당 설계당선작, 주차장, 정권교체에 따른 관심의 향배, 구도청건물의 존치, 주차장, 콘텐츠의 미비, 정부예산의 삭감과 집행지연, 특별법과 법인화, 계획의 축소와 지연 등등 끊임없는 논의가 던져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월 현장 보존이라는 명제는 거대한 국가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큰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담론에 비하면 국가균형발전과 호남의 옹도 광주를 살리고자 한 원래의 국가 정책적 배려와 의도와는 달리 '잘하는지 두고 보자' '돈 먹는 하마' '예고된 재앙'이라는 광주인의 자존을 짓밟는 비아냥을 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산에 '아시아문화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유일한 국책사업이 아닌 국가의 여러 문화사업 중의 하나로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 후 2007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광주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은 무려 5년이 지나서야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수정을 거쳐 작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과거의 계획을 작성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과정을 지나왔다. 이러한 과정의 이후 2013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는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범위를 설정하였고, 4대 역점추진 과제사업, 즉 전당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7대문화권 조성, 문화도시 기반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즉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전략,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부처별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적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획은 계획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응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누가 하는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과업의 추진주체는 당연히 국가이고 국가에서 임명,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다. 물론 광주에 있는 정부기관이고 시설이기에 광주의 정서를 함유하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일에 있어서 추진주체의 불명료함 때문에 사사건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조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각각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타지역과 균형을 고려한 나머지 인력이나 재원을 줄이고 문화 창조, 산업화하는 일에 더욱 경도되고 있어서 격세지감이 든다. 특히 수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앞으로 전당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답답하고 우려가 많다. 전당장과 원장, 감독, 아시아문화연구소장, 문화아카데미 등 이들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조율, 통합적 시너지효과는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민주사회에서 모든 과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고 나가는 근본은 바로 특별법(2006)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갑자기 개정하여 특별법개정안(2013)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니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은 모습이다. 세계적인 문화센터들을 보라. 어느 나라가 정부에서 그렇게도 쉽게 손을 떼고 독립성을 강조하는가? 당연히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천천히 생존하게 하는 것이다. 인구 150만 도시, 그 배경에 겨우 200만도 안 되는 인적자산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 어찌 자립하고 설 수 있겠는가? 그 동안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얘기가었던 복합문화센터인 풍피두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전당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광주시가 맡아야 한다고 하여 왔다. 반면 광주시는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인원을 투자하여 물론 그간 양립동 등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었고 있는데 이는 결국 광주문화수도가 전당하나 짓고 끝날 것이라는 향간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당에 함몰되어 7대문화지구가 언제 어떻게 추진 조성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금년 전당이 개관되었으니 이미 7대 문화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오고 함께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전당이 중앙이 되고 문화지구가 접이 되며 중앙이 강하게 이끌고 도시전체로 확장되고 도시민에게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조급한 심정이다.

전체적으로 사업화, 산업화, 창 제작에 대한 구체성이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당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것인가가 걱정이다. 벌써 이를 걱정하여 정부조직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가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전당의 주요한 기능은 창, 제작을 통하고 문화교류의 중심이 되어 많은 재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찾아가는 '문화협치' 정신이 어디엔가 제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특별법에도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도시가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의식이나 식견이 이미 높아져 있다. 따라서 참여하여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2 Session 지정토론

토론자 김일용_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앞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행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 내 갈등요인을 조정하고 중앙 및 지역과의 소통, 전당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을 조직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조성사업을 정치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피로도가 쌓인 상태이며, 타 지역의 우리지역에 대한 특혜정서 및 견제심리로 추가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형편이다. 아직도 문체부는 전당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광주시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동안 정권교체 과정에서 조성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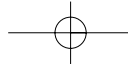


매년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수립 시행해야 하는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문체부)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와 전당권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또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과제가 재원 부담 문제이다. 그동안 아특회계에서 전당 건립과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립기관인 전당의 운영비 소요와 한시적인 특회계의 특성상 사업비의 확대는 어려운 형편이며, 지자체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진하게 될 아특회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1,013억원)'과 '비엔날레 상경 국제교류타운 조성사업(1,175억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지원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권을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아특회계를 통한 국비 확보보다는 중앙 공모사업 응모, 지특회계, 중앙기금 등 재원을 다변화하여 목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비 필요하다.

문화전당은 자의든 타의든 광주시의 미래이면서 아시아 문화채널이 되어야 하며, 전당의 개관은 조성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민의 문화적 역량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광주의 경쟁력이 문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화전당의 콘텐츠와 전당의 운영문제는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전당을 활용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내외 관광객으로 조성해 나가는 건 우리시의 몫이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2017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하는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양립동 역사문화마을과 사직동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더불어 문화전당에서 푸른길 공원까지 있는 5km를 정원으로 꾸미는 「문화전당 둘레길」 사업을 1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 문화전당과 문화교류권 및 푸른길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문화교류권을 통해 전당의 축적된 문화에너지가 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예술분야

토론자 윤만식_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했던 운영주체에 대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민단체들은 항의성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라는 사단법인체를 광주에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임원진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문화전당이나 문화원에 지원이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안건을 논의했으면 하는데,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과 비엔날레 상징 국제교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 토론자는 금시초문이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현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7대 문화권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하여 광주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바란다.

넷째, 전일빌딩 리모델링에 대한 예상금액과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공간 활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청년문화분야

토론자 윤현석_(주)컬처네트워크 대표

문화도시 광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문화기획자 활성화 방안은 첫째, 청년예술인 및 문화기획자를 위한 문화예술창의기금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에서 다양한 문화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최근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고유하여 그 프로젝트가 실행 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과 소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가고, 청년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라도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발전기금’ 과 같은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도전적인 활동과 가치, 철학을 발굴하고 길러내어 더 많은 기회가 지역에서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년예술인 및 문화기획자를 위한 거점 공간의 지원이다.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활동들이 한데 모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네트워킹하고 협력적 사고와 행동으로 기획력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거점공간이 필요하다. ☞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정책분야

토론자 선재규_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첫째, 광주를 8년 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문체부는 2007년 10월 법정 계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할 종합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특별법을 손봐야 한다. 특별법이 도리어 도시 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둘 다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특별한 국가 목적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는 자치를 극도로 제한하고, 하나는 자치를 고도로 보장한다고 하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각 특별법 1조(목적) 참조)

셋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총 시설부지 문화전당 부지의 약 3배에 나로 우주센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의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건립하였다. 연구원의 임직원 수는 700여 명, 이들은 우주 연구의 최고 전문가들이며, 우주 개발 20여년의 추적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화전당은 문체부 공무원 50명을 그대로 책임운영기관인 문화전당 공무원으로 대체해 버렸다. 문화정책 업무와 복합 문화시설 업무는 확연히 다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전당 일부업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한다고 하나, 문화전당 운영주체가 비전문가들인데 이들의 업무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존중될 수 있겠는가? ☞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관광분야

토론자 강성욱_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광주관광 현장 종사자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살기 좋은 광주·전남으로 도시의 경관, 교육, 문화 지표가 관리되어 외래 이주민들에게 안심환경 공급에 광주시는 최우선으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화전당을 잘 살려야 한다. 대중적 사랑을 받아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창출로 재생산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점이 된다는 점에서 홍보마케팅과 전국적 관심을 촉발할 메가이벤트와 기획전시, 문화국제회의 개최 등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 광주의 문화·관광·MICE 협치의 실현,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짧은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광주에서 숙박하면서 ACC말고도 충장로, 예술의 거리, 양림동, 대인시장, 광주폴리, 비엔날레, 충장축제를 끼워 팔고, 아울러 담양, 순천만 등을 함께 팔아야 경쟁력이 있다. 광주와 전남의 방문객들의 이동편의성의 개선하고 스토리를 부여하여 1박 2일, 2박 3일 동안 즐겁게 관광하고 휴식, 체험하도록 남도통합형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승부할 때이다. ☞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기획분야

토론자 전고필_전 대인예술시장 감독

현재 광주는 청년인력, 문화인력을 성장시킬 태도가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 문화인적자원을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가까운 예로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테이를 들 수 있는데,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이 31세 청년문화기획자이다. 그는 예산 지원의 한계와 보여주기 식의 기존 축제가 아닌 자발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복테이를 개최하고, 이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한복대여점이 30여개 업체가 가동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를 흔히들 예방, 의향, 미향의 도시라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광주가 인(人)향이 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지역 사람들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 키우는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문화도시 광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도시환경분야

토론자 정성구_(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문화전당 건립 이후 도시환경 분야에서 관심 갖고 추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전당 건립은 지역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즉, 문화전당은 그동안 낙후된 광주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심 재생 사업의 일부이자 기폭제'로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시에서 추진하는 창의도시, 문화콘텐츠산업, 동구의 도시재생선도 사업과의 연계 등 전당과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당과 시민이 함께 광주를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당이 건립된 지금부터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집중하자. 광주가 진정한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과 7대문화권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은 광주가 가진 정신적·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이 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이나 전당콘텐츠와 결합하여 광주만의 장소성이나 상징성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도시 전역에 순환되며 '광주다움'으로써 세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화전당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은 문화전당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역문화환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문화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문화산업분야

토론자 고미아_(주)위치스 대표

광주는 예전과는 분명 다르다. IT기술에서 이젠 IT, CT, IOT 등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 인력양성사업과 기업 지원정책으로 멀티미디어 기반의 3D, VFX, 모바일, 트랜스기술 등 첨단 사업의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외 여러 사업들이 광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중앙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의 부처와 기관들이 세종시와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시간과 정책들도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고 문화도시 광주 또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비 또는 지방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움직이고 도모하여 광주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가고자 하는 정책에 한번 더 지역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미래의 생태계를 설계하여 미세한 부분까지도 민관이 서로 맞춰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진 정책이 아닌 함께 동행하는 정책만이 실효성의 극대화와 지역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2 Session 라운드테이블 토론 광주시의회

토론자 임택_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솔직하고 냉정한 평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성사업에 대한 주체인 광주의 전략은 있는지, 문화정책부서에 문화전문가가 없는 부분 등 광주시의 지난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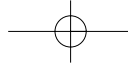
둘째, 지역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광주시의 4대 역점사업 중 광주의 자치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한다. 또한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에 집중해 문화예술향유 기반조성에 행정력과 예산의 집중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시스템을 통해 문화도시의 시민적 역량을 확대해 가야 한다. 7대문화권 사업, 문화예술진흥 사업 등 마을 단위의 참여를 지원하고, 전당운영에 전문 문화단체와 시, 전당이 협의하는 시스템 구축하며,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시민의 시 문화 행정에 참여할 기회제공 해야 한다.

넷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행정의 전문 인력의 확보해야 한다. 경제부시장이 아니라 문화부시장으로, 문화부서의 장은 문화예술전문가의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문화도시 광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광주의 미래를 만들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





추모특집

문병란 시인의 생애와 詩

- 암울한 시대,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민중시인



김정희_ 시인 재단 운영위원장

'사랑하다'와 '살다'라는 동사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같은 말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사랑하는 일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가슴으로 쓴 혁명과 사랑의 시는 영원히 문병란 시인의 부음을 전하는 한 중앙일간지의 기사 제목처럼 시인에게 결국 시대 정신은 사랑이었다.

지난 9월 25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4대 이사장을 지내신 문병란(文炳蘭 1935~2015) 시인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향년 80세.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신체로 이대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남북분단을 견우와 직녀의 관계로 형상화한 문병란 시인의 대표시 「직녀에게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별빛이거나 혹은 불꽃이거나 그렇게 빛나는 슬픔으로 남았다. 언젠가 이 땅의 수많은 견우와 직녀들은 기어이 손을 맞잡고 그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것이다.

평생 문학을 통해 민주화와 통일 운동의 선두에 서 계셨던 문병란 시인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군부 독재정권에 맞서 민중과 통일을 노래하는 참여시를 꾸준히 발표해 왔다. 시인은 조선대 재학 중 1959년에 『현대문학』, 『가로수』 외 2편으로 다형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왔고 조선대학교 교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5·18기념재단 이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시 비슷한 것이 아닌 진짜 시다운 시를 쓰려 노력하며 민중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과 성찰의 시를 쓰셨던 문병란 시인은 고교 교사시절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뒤 다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수배를 당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간행된 시집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죽순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등을 발표하며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학을 발표해왔고 「땅의 연가」(창작과비평

·1981),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동소산의 머슴새」(풀빛 ·1984), 「무등산」(청사 ·1986), 「못다핀 그날의 꽃이여」(1987) 등 여러 편의 시집을 냈다. 또 전남 문학상(1979), 요산문학상(1985)과 박인환 시문학상(2009) 등을 수상했다.



1979년, 네 번째 시집 「죽순 밭에서」가 도서출판 한마당에서 중간(重刊)되자, 유신 말기 정부는 이 시집이 "외설스럽고 민족정신을 부정했으며 일본 국기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문병란 시인은 이에 대해 그 부당함을 따지고 판금조치를 철회하라는 25쪽의 항의서를 당국에 제출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6·29선언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의 한가운데서 5월 정신의 계승에 물러섬이 없었던 문병란 시인은 1980년대 수많은 활동 중에도 11권의 시집을 출간하시며 시인을 따르는 문단의 제자들과 현장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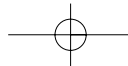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뉴욕타임즈는 특집판을 내어 문병란 시인을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으로 표현했다. 그만큼 문 시인은 시(詩)를 무기로 평생을 저항의 복판에서 실천적 삶을 살았다. 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 언어를 무기로 대항하는 것만이 '시인의 길'이라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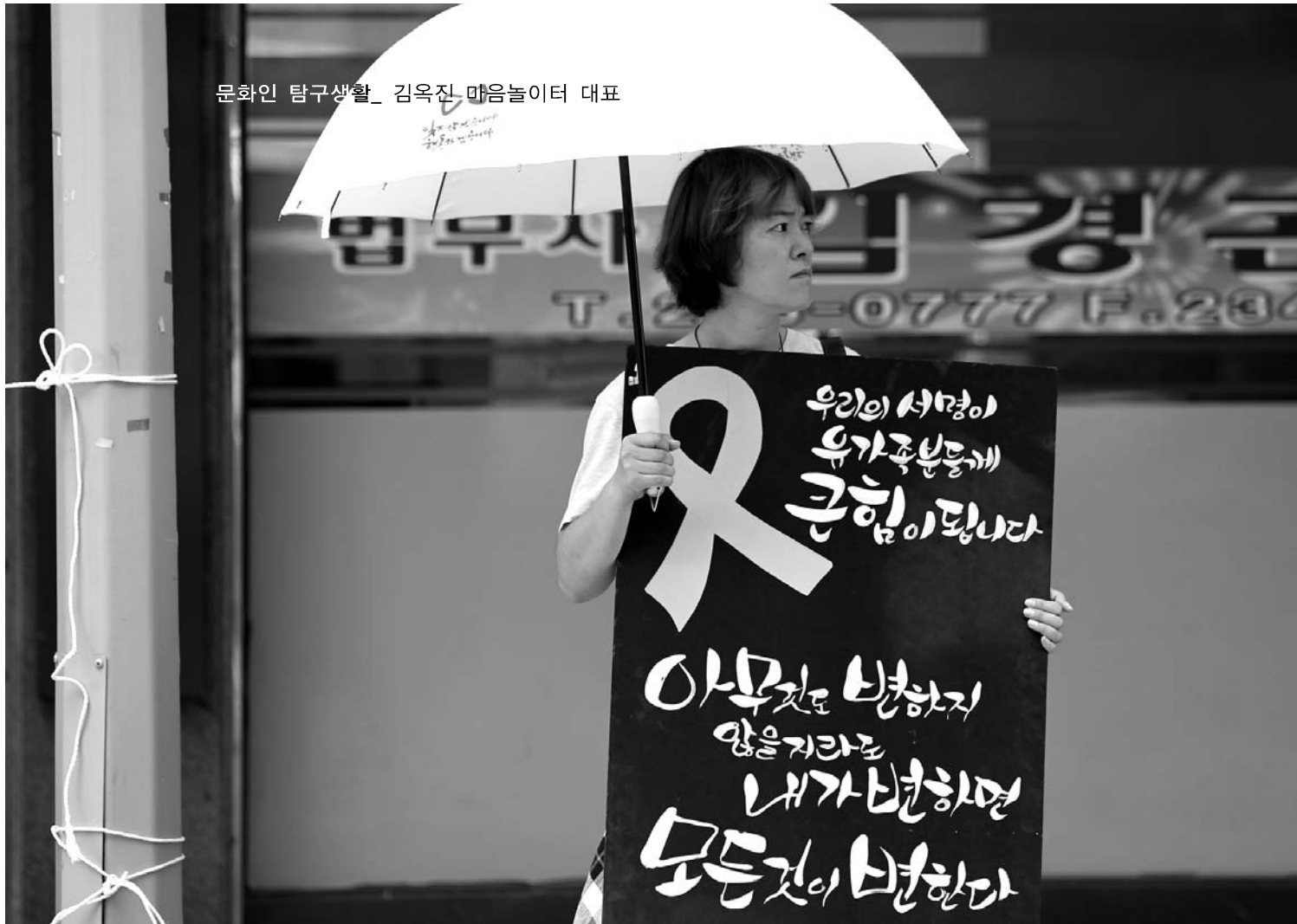
문병란 시인이 저항의 복판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정권이 급조해 나간 시대와의 불화는 속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7, 80년대를 건너오며 그의 시집들은 나오는 족족 판금조치 되었다. 급기야 시인은 1977년 길거리에서 괴한에게 테러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함께 걸던 제자 황일봉(전 남구청장)은 한쪽 눈을 실명했고, 시인은 날카롭게 간 우산대에 머리를 찔렸으나 다행히 급소를 벗어나 4시간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시인은 더욱 열심히 저항의 시를 썼다.

태산과 같은 슬픔이 가슴을 찌누르고
강물과 같은 눈물이 가슴에 넘칠지라도
그 슬픔과 눈물이 꽃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부분

시인, 교단의 참스승, 그리고 변혁기의 사회 운동가 어느 것 하나 균형을 잃지 않고 온 몸으로 시대를 끌어안으며 문학을 사랑의 무기로 강렬한 삶을 살다 가신 무등산의 시인 문병란, 고난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던 시인의 저항의 힘, 민족혼은 '작은 새 콩새의 날개 짓' 이거나 '천년 사무친 예술혼'으로 '이 땅 개땅쇠의 개땅 마을'에서 온천하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리라 믿는다. ♪





문화인 탐구생활_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

문화예술교육, “사람”이 답이다! -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

편집부

추운 겨울, 그녀를 만난 곳은 그녀가 활동하고 있는 마음놀이터 사무실. 그녀는 올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우리동네 엄마들의 행복찾기 - 엄마 꽃이 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을 때 결과전시회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개최될 이번 결과발표회는 “사랑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13명의 엄마들의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엄마 꽃이 되다”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피어나지 못한 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예술의 힘을 빌려 치유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10년차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배우다

광주예술고, 전남대 공예과 등을 거치면서 문화예술의 토대를 다졌던 그녀. 그러나 그녀는 작품활동 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미술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계기로 우석대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을 공부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자 그녀가 교육현장으로 뛰어든 지 벌써 10년. 그녀는 지금까지는 교육현장 일선에 있었다. 주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그녀가 작년, 올해부터는 사람을 키우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이 10명, 20명이라면, 그녀가 함께 할 사람을 양성하면 그 사람들이 또 함께 할 사람들을 10명, 20명 이상 만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알리고,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녀가 최근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과정 멘토, 강사단 인력워크숍 등을 참여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본인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단다.

양산동에서 촛불을 밝힌 그녀

세월호 상주모임이 처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녀는 처음부터 결합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녀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그녀가 함께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제대로 진상 규명되어 잘 마무리 되고, 사회 분위기도 달라질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판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일곡촛불모임 때 찾아갔고, 양산동 동네에서 혼자라도 촛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산동 촛불모임’. 그녀는 양산동 택시사거리에서 첫 촛불모임을 소박하게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정말 힘들었지만 촛불을 밝혔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현재 아무도 책임지



“우리동네 엄마들의 행복찾기” 참여자 단체사진

려 하지 않고 있기에 끝까지 촛불을 밝힌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그녀가 밝힌 촛불을 보고,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밝힌다고 덧붙인다.

그녀가 희망하는 미래는...

광주는 소외된 지역, 역사의 아픔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광주사람은 역사적 상처를 가진 사람이기에 세월호 사건(4.16)을 더욱 집중한다고 말하는 그녀. 현재의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기에 4.16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라 말한다.

이제 그녀는 문화예술교육도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이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가는 광주만의 문화예술교육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광주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면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어, 조금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워도,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

문화진단

광주의 광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인서_ 서구문화원장, 광주문화도시계획 상임대표

최근의 도시 광장은 다양한 활동이 모여 융합하고, 창조적 활동을 촉발시키는 중심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퀸시 마켓과 광장, 미국 포틀랜드의 파이오니어 광장, 프랑스 몽펠리에 코미디 광장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 5·18민주광장

광주에서 광장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곳을 들 수 있을까? 아마도 손에 꼽을 것이다. 사실 예전에는 광주에 광장이란 게 없었다. 우리가 광장이라고 말했던 백운광장, 농성광장, 대인광장 등은 교통광장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라고는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앞 광장 정도였다. 시청앞 광장도 있었지만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다. 비엔날레광장도 있지만 대형 전시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반 사람들이 없다.

70년대 민주화투쟁과 80년 5·18 이후의 광장은 도청앞 광

장이 가장 생각한다. 5·18기념 행사를 열거나 대형 이벤트 그리고 충장축제 때 금남로3가까지 막아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광장과 비슷할 뿐 매일같이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즐기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기 전의 도청앞광장은 교통광장이었다. 이 도청앞광장이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광장으로 변했다.

정식 명칭은 5·18민주광장이다. 이곳은 8,287㎡ 크기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1998년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5·18 당시의 상무관, 분수대, 최근 돌아온 시계탑 등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이 광장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차로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이제 시민들이 언제나 모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또 하나의 광장을 굳이 든다면 유스퀘어광장이다. 지난 9월에는 제17회 한국청소년영화제가 열렸고 광주시립국악단의 버스킹 공연, 제10회 빛고을청소년축축제, 생활무용대회



등이 열렸다. 요즘 같 데 없는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성매매 근절 이미지 포스터전이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사진전 등도 펼쳐진다.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은 별다른 역할을 못한다. 시청사 5층 옥상으로 올라가 전경을 봤다. 변화한 상무지구와는 동떨어진 공간, 4차선의 큰 도로가 연결을 막는 환경,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 등이 없다. 점심 무렵 시청 공무원들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쓰일 뿐이다. 지난 여름에 텐트촌으로 개방한 '열대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원점부터 말해보자. 5·18민주광장, 유스퀘어광장, 시청앞광장을 우리는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 광장은 어떤 특정 행사가 열릴 때만 사람들이 모이거나 때로는 동원(?)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 광장에 시민들이 흥겨워서 자연스레 흘러들어가 노는 모습을 보기가 극히 힘들다.

지난 10월 취재차 방문했던 스페인 현장에서 본 광장과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의 광장은 물론 이동 중에 발견한 아주 조그만 마을의 광장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지만 세계가 한결음 가까워진 현실에서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을 겨냥한 광주만의 차별화된 광장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삼삼오오 모여 음악연주를 하건, 비보잉을 하건, 그림을 그리건, 연극을 하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의 도시 광장은 다양한 활동이 모여, 융합하고, 창조적 활동을 촉발시키는 중심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퀸시 마켓과 광장, 미국 포틀랜드의 파이오니어 광장, 프랑스 몽펠리에 코미디 광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볼 때 융합형 광장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광주에 아직 이런 역할을 하는 광장이 없다. 광주에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 없다. 문화전당앞 5·18민주광장의 효용가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관 위주의 동원형 행사나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



1 광주문화도시계획 주최 11월 토론회 '광주 광장의 활성화 방안'
2 유스퀘어 행사

한 행사가 연이어 벌어질 뿐이다. 이벤트성 집단 소통만 이루어질 뿐 다양한 소통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광장문화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광주문화도시계획' 운영진들이 모여 지난 11월 토론회를 열었다. 광장은 행정에서 이벤트 행사를 벌이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맡겨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하로 숨겨놓은 전당 설계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사 때마다 광장에 몽골텐트를 치는 부조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전당앞 광장은 광주시가 행사를 벌이는 곳이 아니다. 광주시의 행사는 시청앞 광장으로 가야 한다. 현재 문화전당 앞 광장은 누구든지 철퍼덕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광장으로 그들이 사용하다 보면 정착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진단

‘하늘의 평안한 문(天安門)’ (Gate of Heavenly Peace) 앞의 광장

김하림_조선대 교수, 재단 이사



본래 광장은 특정 집단이나 권력의 소유물이나 과시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에서 성숙된 논의가 공론이 되어 거리를 거쳐 공론장으로 작동하는 광장이어야 할 것이다.



천안문 광장

오래 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이었던 1989년 겨울, 맨 처음 천안문에 올라 광장을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은,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무어라 형용하기가 어렵다. 담장과 문의 높이, 광장의 규모 등에 압도당하면서 ‘그래 대국은 대국이잖아’라는 어쩔 수 없는 수궁과 한편으로는 ‘그래서?’라는 거부의 심리가 교차하는 그 순간의 무엇이 그 당시 느낌이었던 듯하다.

최인훈은 소설 『광장』에서 ‘광장’과 ‘밀실’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를 찾지 못한 이명준은 제3국으로 가는 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념한다고 조성된 광장이 사실은 정반대의 ‘사람’이거나 ‘것’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천안문(天安門) 광장도 이 점에서 ‘광장’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천안문의 원래 이름은 승천문(承天門)으로 명나라 영락(永樂) 15년(1417)에 궁성을 건립하면서 건축되어 영락제 18년에 건립되었다. 이 문은 1457년 낙뢰로 소실되고 1465년에 재건되었지만, 1644년의 이자성의 베이징 공격으로 명조가 멸망했을 때 같이 소실되었다. 현재의 문은 청나라 순치(順治) 8년(1651년)에 재건된 것으로, 이때 현재의 ‘천안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천안문의 만주어는 ‘하늘의 평안한 문’이라는 뜻이며 한문으로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린다’(受命于天, 安邦治民)는 글귀에서 가져왔다.



천안문 광장

(옛날 지금성의 북쪽에 있는 경산 위쪽으로 ‘지안문(地安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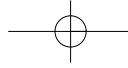
명, 청 두 왕조 시대에 천안문 앞에는 ‘1’자형의 광장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일반 백성들은 출입이 금지된 궁정광장이었다. 명·청 시대 법률이나 명령을 공포할 때 최초로 이 문에서 발표했고, 출전하거나 개선하는 군대를 황제가 점검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현재에도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중국 국가주석이 사열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수립되고서 천안문 광장은 중국 현대사의 중심이 되었다. 1919년의 ‘5·4운동’, 1925년의 ‘5·30운동’, 1935년의 ‘1·29운동’ 등과 같은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민족민주운동은 모두 천안문 광장에서 출발하였다. 각 대학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모두 ‘가자, 천안문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결집한 장소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도 천안문 위에서 광장에 모인 수십 만의 군중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문화대혁명시기 백만의 홍위병이 모인 곳도 이 광장이었다. 1989년 ‘6.4 운동’도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천안문광장’에 모이면서 본격화되었던 것에서도 중국에서 ‘천안문 광장’이 지닌

상징과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봉건왕조시대의 적은 규모의 광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한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이다. 세 차례에 걸쳐 조성되어 1954년 완성된 이 광장은 남북으로 880미터, 동서로 500미터, 면적이 44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최대 백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할 수 있다. 광장의 중앙에는 37미터가 넘는 ‘인민영웅기념탑’은 1952년에 시작해서 1958년에 완성되었다. 올해 중국 공산당은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의 열병식을 천안문광장에서 진행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이 군사대국의 위용을 세계 최대 규모의 광장에서 자랑한 것이다. 이 열병식을 보며 중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은 천안문광장에 대해 무엇을 느꼈을까? 궁금한 일이다.

본래 광장은 특정 집단이나 권력의 소유물이나 과시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에서 성숙된 논의가 공론이 되어 거리를 거쳐 공론장으로 작동하는 광장이어야 할 것이다. 아고라(agora)나 포럼(forum), 혹은 공원(park)의 기능을 상실한 광장은 더 이상 광장이 될 수 없다. ♪



문화현장

학동 백화마을 그리고 광주백범기념관

장선미_ (사)백범문화재단 기획실장



나도 백범이야

김구 선생님의 호 백범에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조국 독립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백범(白凡)은 미천한 백정의 백과 보통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범부의 범을 딴 호입니다. 즉 천한 백정과 보통사람 범부까지도 전부가 적어도 김구 선생님만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는 뜻인거죠.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내가 만일 민족의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만한 것은 대한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구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백범이기 때문이에요.



김구 선생님 동상

백범김구선생과 백화마을

1946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돌아온 김구 선생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애국계몽강연을 하셨습니다. 광주대성초등학교에서도 '김구 선생 환영 기념강연회'가 열렸었는데, 당시 서민호 광주 부윤(府尹)이 귀국동포 전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자, 김구 선생님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받은 성금과 선물 등을 모두 전제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증하십니다. 여기에 광주지역 유지들이 힘을 보태어 학동 8거리 일대 4~4.5평 남짓 작은 건물 100세대의 집을 지어 전제민들의 보급자리를 마련하였고 김구 선생님의 뜻에 따라 '백 가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의미로 '백화(百和)마을'이라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이곳에 797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 백화마을의 옛 모습과 마을의 유래가 잊혀지게 되자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김구 선생님과 백화마을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록하기 위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였고 백범 정신 선양사업

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이 2015년 광주백범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광주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 의거 106주기였던 지난 10월 26일 개관한 광주백범기념관은 1층 주차장, 2층 전시실, 3층 교육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에 오시면 가장 먼저 김구 선생님이 정답게 내미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동상과 마주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 후 당시 어지러운 나라사정 속에서도 김구 선생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어린 학생들의 활발한 기상을 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독 아이들과 정답게 악수를 나누시는 사진이 많은데 김구 선생님 동상은 이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전시실은 김구 선생님의 생애와 활동, 그의 유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아들과 국민에게 남긴 백범일지(복제본)와 그 원본을 보존하기 위한 영인본을 전시하였습니다. 영인본은 관람객들이 직접 손으로 넘기면서 김구 선생님의 친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애국단 선서문, 1948년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한 서신, 오방 최홍중 목사에게 남기신 '화광동진' 휘호, 김구 선생님이 서거하시자 백범학원생 일동이 남긴 '만장' 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라위해 살다간 광주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1016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임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나누고 싶은 백범이야기

독립운동가의 위대한 업적 이외에도 가장 낮고 평범했던 김창암·김창수·김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시국사범으로 감옥살이를 한 세월이 많았기에 고작 3~4년에 불과했던 재미있는 가정생활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어머니 박낙원 여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지기, 정치후원금품으로 조성된 백화마을, 백범학원·창암학원 중장둔 그리고 '머리가 되려고 다투지 말고 발이 되려고 다투자' 의 쟁두쟁족(爭頭爭足)까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곳에서 적지않은 세월 밥벌이를 했던 저는 정작 백범일지를 독파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구가 매번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과거장에서 낙방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같은 동학군의 공격까지 받았으니 더 말해 무엇할까요? 세 번째는 의병전쟁에도 참가하지만 승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슬그머니 빠져 나왔던 부분을 읽고 그만 책을 덮고 말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최선봉에서 앞장섰던 김구 선생님이 매번 실패한 것을 보고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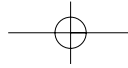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판단-실행-계속의 가르침을 말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나이 20살에 평생의 스승 고능선을 만나 사람은 옳아야 한다는 '의리'의 세계관을 배우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판단하고 실행하되 비록 실패할지라도 계속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평생 실천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실패의 연속에서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셨고 우리는 겨레의 큰 스승이라 부르죠.

끝으로 백범일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에 앞서 광주백범기념관을 관람하신 후 백범일지를 보시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로 꼭 광주백범기념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



기념관 전시실 내부



문화청년그룹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청년성장공동체, 아모틱협동조합



추민수_아모틱협동조합 대표

아모틱협동조합이란?

아모틱은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청년성장공동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자기다운 삶을 찾아가는 방식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며 타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협동조합이죠.

아모틱협동조합이 탄생한 계기

제가 사실 공대 출신인데,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4학년이 되고 입사 지원서를 쓰는데 쓸 말이 없더라고요.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과정을 써야 하는데 전형적인 답변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걸 쓰자니 차별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삶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삶은 자신에 집중하기 보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캐나다에 갔어요. 캐나다에 가게 된 건 제 삶에서 누가 시키지 않은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그 행동을 시작으로 캐나다에 지내며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얻은 게 많았어요. 한국에 돌아오니 예전의 저와 같은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 바로 아모틱협동조합입니다.

아모틱협동조합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의미해요.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확장하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확장 되면 더 좋은 일이겠죠. 세상을 위한 일을 할 때 즐겁고 존경가치를 느끼며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동시에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차별화된 자기만의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아모틱협동조합의 운영

아모틱협동조합 내에서 연구원들은 찾아오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을 가이드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가이드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는 독일의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독일에 있는 어떤 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모틱 연구원의 코칭을 거쳐 간 일에서 수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모아 운영하고 있어요. 개개인에게 알맞은 프로젝트를 지정해주고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1 개강패스티벌 - 독특한 연애 2 발상실 3 얼마나 걸었니 4 관찰프로젝트

아모틱협동조합의 특별한 운동

아모틱협동조합에는 첫 번째는 감사 운동인데요. 자신이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게 되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 속에서 작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려 운동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발견하고 충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친절이 내 패러다임 안에서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라면 배려는 진짜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저희끼리 그래서 마니도 활동을 해요. 마니도 활동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하게 되잖아요. 우리끼리 만든 소소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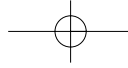
세 번째는 자기확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저희의 사업 모델 중 하나인 '#나@세상(세상에 나를 해시태그하라!)'에서 '나다운 정체성 명함'을 만들고 온·오프라인으로 뿌리면서 자기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명함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뿌려보고, 내가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명함을

뿌리고 온라인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세상에 자신을 해시태그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거죠.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청년들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어디 한군데에 정착시킨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틀 안에 넣어 놓지 말고 먼저 찾아 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자기만의 방식을 제안하며 자기를 활용할 수 있게 알려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기회가 열릴 수 있고, 나다운 스토리가 생기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욕망만을 충족시켜주며 돈을 버는 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점을 찾아 막혀 있는 곳을 파악하고 뚫어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전화| 070-4195-1772, 062-269-1772



문화특독

뽀뽀폴리?

천의영_광주폴리III 총감독,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현대건축에서 공간의 조직화와 형태구성 사이에서 새로운 충격을 주었던 혁명적 사건은 1983년 파리 19구의 라빌레트 공원 재개발에 대한 국제 설계 경기에서 베르나르 추미의 안이 당선된 것이고, 이후 1987년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추미는 이 현상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체주의 철학자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의견을 구해가면서 디자인안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이다. 추미의 라빌레트 공원은 점, 선, 면의 새로운 중첩그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점적인 행위자는 10m×10m×10m 크기의 폴리로써 120m 간격으로 약 35개 정도 뿌려지게 된다. 여기서 추미가 디자인한 폴리들의 형태는 193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자 체르니코프의 '101가지 건축의 환상'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기호학적으로는 기표이지 기의는 아니다. 즉 하나의 지시자일 뿐 어떠한 고정적 기능이나 의미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수용적 구조체이다. 추미는 엉뚱한 구조물 폴리(Folly)와 발음이 같은 광기라는 뜻의 폴리(Folie)의 이중적 의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역사적 켜로 짜여진 기존 도시문맥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다. 즉 구조화된 도시공간에 놓여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비구조화된 활성화 장치가 현대적 의미의 폴리이며, 우리가 광주에서도 구조화된 도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창조공간의 대안으로 광주폴리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광주폴리III은 광주의 미래를 담는 새로운 비규정 형식의 '도시 활성화의 장치(urban devices for revitalization)'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민과 커뮤니티의 참여와 소통의 도시공간장치이다. 어떤 폴리는 크



울라파 엘리야슨의 레인보우(뷰폴리의 예시)

일반적으로 방문자들이 여행에서 도시를 경험하는 요소들인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광주폴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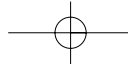
라우드 소싱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채워가거나, 운영방식, 건축형상 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물론 폴리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여자들에 의해 완성되어 가지만,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는 누가보아도 세계적수준의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방문자들이 여행에서 도시를 경험하는 요소들인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광주폴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광주 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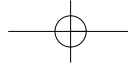


아베 료의 사바카촌(쿡폴리의 예시)

날레와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이미 광주의 멋 차원을 끌어 올리는 중요한 도시적 체험장치가 되고 있다. 방문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광주의 음식과 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색다른 광주의 문화를 체험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도시의 일상성(The critique of everyday life)'은 앙리 르페브르의 이야기처럼 도시를 만나는 추상성과 진실이 직면하는 교차점이고, '공간생산론'에서 이야기하듯 광주폴리를 통해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2014년 광주가 유네스코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선정되면서 광주폴리는 도시브랜딩의 핵심요소로서 미디어아트 예술과 결합되는 아트(Art)폴리, 때때로 맛집이 되는 쿡(Cook)폴리, 또한 도시야경의 전망을 제공하는 뷰(View)폴리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진화하고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폴리의 별명을 뽀뽀폴리(fun & pun folly: fun urban networking & positive unique narratives)라고 부르려고 한다. 1, 2차 폴리에 비해 너무 무겁지 않게 도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고 관심을 끌기 위한 네이밍이다.

특히 일부 폴리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작가의 기획, 평가, 운영, 참여 방안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조사례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광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색하되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장소선정 소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주어진 예산으로 예술과 건축의 결합을 만들어 내고 효과가 커지려면 가능한 제작 개수를 줄이고, 개당의 비용과 파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 폴리의 선정은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을 제출하고, 이를 경쟁방식의 배틀로 평가하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강력한 안을 실제 구현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광주폴리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특독

도덕성은 바탕과 뿌리의 문제다



박신영_소설가, 재단 운영위원

오늘날처럼 도덕성이라는 말이 날 세워진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리사회가 그런대로 건전했기 때문이며 유독 오늘날에 와서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인가? 아니다. 처음부터 비리로 시작되어 쌓이고 쌓인 것이 이제는 타락 이하의 파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높아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덕성인가하고 묻는 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발자취를 남겼다면 도덕적 비판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지 않겠는가. 이처럼 도덕성은 양심과 오랜 생활의 문제이며 곧 바탕과 뿌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인간의 사이비 덕성이나 안이성에는 늘 전망증이 따라다녔다. 그저 속편하게 좋은 게 좋다보니 지나간 일들도 있고 현시대의 장단에 따라 웃어주며 박수까지 쳐댄다. 거기다 호인스러워 지기 까지 한다. 한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 재주를 부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는다. 바탕이나 뿌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속절없이 적응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던 과거보다는 너무나 잘 살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더욱 잘 못 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가난했던 시절보다 사람들은 한결 약삭빨라지고 한결 험악스러워져 가고 있다. 저마다 움켜쥔 돈주머니의 부피도 서로 비교조차 안될 만큼 호박덩이와 깨알처럼 되어버렸다. 왜 그런가? 이른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까닭이다. '경제 성장의 별수 없는 그림자'라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가 접어 두고라도 엄청난 격차의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땀 흘리는 문화를 외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제 스스로 이마에 흘리는 땀으로(그것이 육체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제 먹이를 얻어 누리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불행하게도 요즘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 것이 천복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우리네 과거의 양반 역사가 편안하게 놀고먹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만큼, 천복 타령의 그 뿌리는 더 깊어져 오늘날까지도 노동 '천시'의 잔재가 청산되지

일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그런 활동이 잘못 빛나가서 불로소득을 위한 설침이 될 때 그 생명체는 뿌리에서부터 병들고 병든 생명체로 구성된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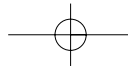
않고 있는 것이다. 하기가 그 옛날 새마을 운동시절에도 '공순이'니 '차순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로 빈부 격차를 정하고 있었으니 현대에 와서야 오죽 하겠는가.

손에 금가락지 끼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기름 때 묻은 옷이나 흙 묻은 손발을 아직도 창피스러워한다. 누군가가 한국에는 노동정신조차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우리는 일하는 그것이 그저 돈벌이의 수단일 뿐 일하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서 일하는 재미, 일하는즐거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그런 활동이 잘못 빛나가서 불로소득을 위한 설침이 될 때 그 생명체는 뿌리에서부터 병들고 병든 생명체로 구성된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았던 소중한 문화가 귀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노동 정신의 문제를 떠나서 일하는 것이 재미나 즐거움보다는 고달픔과 괴로움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놀고먹는 불로소득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억울하게 고달프고 괴로운 비지땀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짓밟히는 아픔도 그만큼 커진다는 이치와도 같다.

이러한 이치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땀 흘리는 삶 그 시절의 문화가 오늘날의 도덕적 타락이나 설치는 이기심도 극복하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래 잘못 길들여진 경쟁의 칼부림과 황금만능의 속임질에 문드러져버린 도덕성이 현대에서 쉽게 회복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땀 흘린 만큼 저녁 내내 머리 싸매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 떳떳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 누가 누구의 등골을 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상식만큼은 지키며 살아야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은 진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생각 저생각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염원하며

성진기_ 전남대 명예교수



20여 년 전 좀 엉뚱한 염원을 갖고 만든 <카페 필로소피아, Cafe Philosophia>

문을 열었다.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려워 잘 살아 보자고 떠들었고, 독재가 싫어 민주화를 외쳤다. 어느 정도 빈곤 탈피

와 민주화의 기미가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염원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의 꿈이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노정된 과오와 불행은 역사를 만들고 끌어가는 우리 자신들의 철학의 부재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았다. 또 한 개인의 경우도 철학을 가진 인생은 덜 불행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철학이 불행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대로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갈구하는 학문이다. 진리의 범위는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지혜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진선미 등 인간이 열망하는 정신적 가치를 겨냥하는 학문이다.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이런 가치의 실현이 미흡할 때 우리는 초라해진다. 따라서 철학을 함은 우리가 인간의 품위를 확보하려는 몸부림이다. 민주의 도시, 문화의 도시, 생산의 도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도시'가 못 된다면 문제다. 물론 우리들은 당장 뭘 먹고 살까를 걱정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렇게나 먹고 살지 않으려고 고뇌한다. 철학은 이러한 인간의 고뇌에 간여한다. 배고픔과는 다른 문제, 인간됨의 문제를 천착하는 데 앞장서는 학문이다.

우리들은 종종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을 간파해야 한다. 눈앞에 불효자가 득실대더라도 장차 있어야 할 효자를 강조하고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진화하는 것이다. 인간과 인생의 지도는 비교적 철학이 잘 그린다. 철학자가 한 사회의 지도

우리들은 종종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을 간파해야 한다. 눈앞에 불효자가 득실대더라도 장차 있어야 할 효자를 강조하고 요청해야 한다.

자가 되어야 하는 논리는 없지만, 우리 사회 지도층, 중요한 의사 결정자, 교육받은 사람, 좀 더 가진 사람, 어른들이 양질의 철학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 이런 부류는 한 사회의 '장교'로서 지도력을 가졌기에 그렇다. 전쟁에서 졸병보다 장교의 판단과 지휘가 수월해야 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철학카페'가 캠퍼스에서 거리로, 세상으로 나와 지각 있는 시민을 찾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1주일 두 번 철학 강좌를 열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서양철학사'를 섭렵하는 강의다. 사십대부터 칠십대까지 20여명이 어울려 공부를 한다. 수업 후 소위 2차에서도 철학적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철학적 주제가 실제 생활에 스며드는 게 여간 신나지 않는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니체(Nietzsche)를 공부한다. 인문학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만나는 철학자가 니체여서 그런지 니체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교재는 니체의 주저에 해당하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다. 아시는 대로 이 책은 철학 책이지만 시문도 같아 감동적 대목이 많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삶의 격>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한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참여자 모두가 삶의 지혜를 다듬는 시간이 된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정규 수업 이외로 '인문학 세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일(Sail)은 '항해'를 뜻하는데 철학 이외에 문학 역사를 골고루 다룰 계획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17회 개최했는데, 가장 최근으로 지난 10월 "몸, 인문학으로 묻다"를 주제로 3쪽지(철학적, 문학적, 종교적 주제)를 펼쳤다. 또 2013년엔 '니체 쇼(Nietzsche Shaw)'를 통해 니체 사상의 미학적 논의를 전개해 드물게 성공적 학술 행사를 가졌다. 여기서는 니체 관련 연주회, 회



화 전시를 통해 니체 사상을 종합적으로 추적했다.

철학카페가 1996년에 문을 열어 내년이면 20주년이 된다. 야심찬 기념 행사를 구상 중이다. "철학이 무엇을 하랴"라는 주제로 요즘 유행하는 '철학토크쇼'를 진행할 생각이다. 도대체 철학이 어디다 쓰는 학문인가를 전공자와 청중의 대화를 통해 답판을 지어볼 생각이다. 철학이 '선'이라는 중지가 마련되면 함께 철학공부를 하자고 권면할 것이다. 20주년 기념사업은 하나 더 있다. 회원들과 함께 "인문학의 영혼을 찾아 떠나는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문학, 철학, 예술, 종교 등 인문학 정신의 기념비적 흔적을 찾아 발품을 팔 작정이다.

필자가 사는 광주가 한국의 어느 도시 보다 좋은 곳이기 를 소망한다. 부가 축적된 곳이 아니어도, 권력자가 배출되지 않아도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에서 1위를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사는 땅'이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장동의 한적한 노변에 '인문학 등지'를 열어 놓고 노심초사한다. 19평 크기에 책도 많고, 오디오도 좋고, 그림도 볼만해 괜찮은 공간이다.

욕심이 있다면, 많은 분의 사랑이다. ☺

이생각 저생각

광주 구성로 답사기

이춘배_시인



구성로가 시작되는 돌고개삼거리. 가운데 빨간 2층 건물이 '구성로'이고 우측길에서 시작된다.

집밖을 나서서 어디든 가려면 길을 따르게 된다. 길을 만든 건 사람이지만 길이 사람의 동선(動線)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길을 나서면 사통팔달의 온갖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가 큰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으며, 곧고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길, 혹은 절벽과 마주하기도 하고 벼랑 위에 서기도 한다. 인생은 그런 길 위에 선 존재이다. 삶도 길을 가는 것과 닮아 있다.

길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길을 타고 문화와 물산이 흐르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공동체로 묶어주기도 한다. 공동체를 인체로 본다면 길은 혈관이 된다.

길은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행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을 낳은 고대 로마제국

은 점령지마다 도로를 먼저 닦았다.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타의에 의해 길을 내게 된 아픈 역사가 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과업도 철도,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 기간산업의 개발이었다. 이것 역시 고대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 강화와 수탈을 위한 건설이었다. 사실이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겨주었지 않는나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만약 새로 쓰는 역사교과서에 그런 틈새라도 보인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대동아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조선에서 태평양 전쟁을 치를 물자를 획득하며,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위한 만주까지의 길을 닦았던 것이다. 고대 로마가 인력과 자원을 점령지에서 획득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국민을 노예화하여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였던 것은 너무도 선연한 역사적 진실인 것이다.

근대의 광주도 일제에 의해서 많은 길이 닦였다. 대표적인 길이 바로 구성로(龜城路)였다.

구성로는 국도 1번도로였던 광주-송정간 도로의 일부로서 돌고개에서 시작되어 옛광주역(현 동부소방서)까지 이어졌던 길로, 나중에 광주역이 이전된 뒤로 광주고등학교 앞까지 연장되었다.

이 도로는 태생적으로 권력행사와 수탈을 위해서 놓아진 철도역에 기인한 바 크지만, 사실 도로변에서는 광주와 남도 서민들의 생활의 현장이 되어주었다.

길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길을 타고 문화와 물산이 흐르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공동체로 묶어주기도 한다. 공동체를 인체로 본다면 길은 혈관이 된다.

일제는 1922년 민간철도회사로 하여금 광주역을 설치케 하여 송정리역을 거쳐서 서울과 목포로, 또한 담양으로(담양선은 1922년~1944년까지 존치), 그리고 나중에 순천-여수로 이어졌으니(1930년), 철도에 의존도가 컸던 시절 구성로는 실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충장로1, 2, 3가(일제시대에는 본정(本町)-1, 2, 3, 정목(丁目)으로 불림)의 상권을 일인들이 틀어쥐고 있는 마당에 늦게야 상업에 눈을 뜬 조선인들은 북문 밖의 외곽에 속하는 충장로 4, 5가에서 조선인들의 생활필수품인 주단, 포복, 고무신, 미곡 등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여 갔던 것이다.

8·15광복은 이 도로에게 육일승천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다. 한때 호남 최대의 상권을 이루었던 것이다.

전남 도청으로부터 북쪽으로 시원하게 뚫린 금남로가 광복된 조국에서의 지방권력의 상징이었다면, 구성로는 충장로와 함께 주민 생활의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이 광주역과 버스터미널이 이전한 뒤로 오늘날까지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다. 도로의 시발점인 양동과 달피마을(월산동) 사이는 무속(巫俗)의 거리로 변했고, 월산사거리를 지나 광주대교 지역은 퇴락한 주거시설과 구멍가게들이 현상유지에도 벅찬 듯 험쩍이는 호흡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현대극장 자리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옛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기동과 충장로 5가, 금남로 5가의 주변 모습도 옛날의 그 역동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옛 광주역사였던 현 동부소방서는 말 그대로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이고, 철도부지였던 대인시장은 예술시장으로 거듭났다고는 하나 재래시장인지라 한산하다.

계림동으로 접어들면 고만고만한 상점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화상경마장만이 우뚝해 보인다. 시민들의 사행심만 부



수창초등학교에서 전남도청 쪽을 바라본 금남로 확장 이전 1968년의 모습
①수창 초등학교 ②전남 제재소 ③대한극장 ④구 광주야래 ⑤중앙교회(빛고를 100년사)

추기고 별다른 영양가가 없는 시설인데 유일하게 북적거리고 있다.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사치스럽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광주가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려면 이처럼 소외된 지역도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 넣어 활기를 되찾아주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 한 자락을 저미고 있다.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제 20차 테마탐방

- 충남 청양 역사문화기행 다녀오다



9월 19일 토요일, 풍성한 가을 정취와 더불어 충청도의 역사문화 흔적을 찾아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한 이번 역사문화기행은 참가자 40명과 함께 '칠갑마루 청양에 머물다'라는 주제로 칠갑산이 품은 두 개의 국보와 네 개의 보물을 간직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대웅전이 있는 천년 고찰 <장곡사>와 최고령 의병장으로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애국지사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정신이 깃든 <모덕사>, 국내·외 장승 350여 개가 재현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 칠갑산 <장승공원>, 옹과 호랑이의 전설이 서려있는 칠갑산의 명소 <천장호 출렁다리>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전종채, 김영희 청양문화해설사의 알찬 해설로 탐방의 깊이를 더했고,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보너스로 <부여 정림사지>까지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 9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성료

우리재단과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은 10월 8일(목)부터 11월 5일(목)까지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강당에서 1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정신, 문화와 인권으로 말 걸기'라는 주제로 제9기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이하 시민대학)을 개최하였다. 이번 열린 시민대학은 나간채 관장의 강좌(10월 8일)를 시작으로 제2강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10월 15일), 제3강 천득엽 전남대 교수(10월 22일), 제4강 주홍 치유예술가(10월 29일)가



강사로 참여하였고, 군산으로 떠나는 역사문화탐방(11월 5일)을 병행하였다.

한편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호남학 임원·의병·동학혁명·광주학 생독립운동·5·18민중항쟁으로 면면히 흐르는 숭고한 광주정신의 참 뜻을 이해하고 오늘, '문화도시 광주'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행정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성료

우리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은 10월 6일(화)부터 12월 1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홀에서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를 주제로 시민강좌 8회, 순회강좌 2회에 걸쳐 국내 석학을 초청해 매회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시민강좌를 성황리에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시민강좌는 호남권역 기록문화유산의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미와 감동을 통

재단소식



한 인문감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호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기록문화유산과 인문학의 접목을 시도한 시민강좌로 큰 기대를 모았다.

강좌 프로그램은 •제 1강좌 10월 6일(화), 개혁가 다산의 기록의 힘(박석우 다산연구소 이사장) •제 2강좌 10월 13일(화), 선비의 사유를 담은 남도의 주거건축(천득엽 전남대 교수) •제 3강좌 10월 20일(화), 전통미술의 상징세계로 보는 옛 그림(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 •제 4강좌 10월 27일(화), 학맥과 사상으로 읽는 호남사림(고영진 광주대 교수) •제 5강좌 11월 3일(화), 조선의 부부에게 묻는 사랑법(정창권 고려대 교수) •제 6강좌 11월 10일(화)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제 7강좌 11월 17일(화) 섬의 인문학(강봉룡 목포대 도서관화원연구원) •제 8강좌 11월 24일(화) 역사, 기록과 기억의 투쟁(오향녕 전주대 교수) •제 9강좌 12월 15일(화) 선비, 청백리, 의병 그리고 장성(김세곤 호남역사문화원장) •제 10강좌 12월 15일(화) 한말 호남의병과 시대정신(이종범 조선대 교수) 등의 차례로 진행되었다.

재단 송년의 밤 열려



재단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7일(목) 오후6시30분에 광주 국제교류센터 1층 강당에서 임원, 회원 등 6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재단 임원, 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송구영신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백수인 이사장과 강동완 진흥회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재단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재단의 약속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연대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 결성 및 출범식 참여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가 대표자회의 및 출범식을 10월 7일(수) 오후 2시에 가졌다. 광주시민운동본부에는 광주시의회, 지역교육,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78곳이 참여했고, 향후 계속 참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동대표단은 광주경실련, 광주어린이집연합회, 광주교총 등 17개 단체가 선정하고, 광주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선출하였다.

제 2회 고봉학술발표회 열다.

우리재단과 고봉선생선양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고봉선생학술발표회가 지난 10월 16일 오전 10시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충청, 영남, 호남지역 유림 및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우리 재단 강동완 지역문화진흥회장, 기용주 고봉선생선양위원회장 등의 인사말에 이어 전남대 김봉곤 박사의 '고봉

재단소식



기대승의 강학활동과 문인집단' 주제 발표와 대구 퇴계학회 이동건 이사장의 '논사록을 통해 본 고봉의 도학정신'에 대한 학술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전날 15일에는 충청 모덕사를 비롯한 충청 지역 유림 및 경북 도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교류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방림 2동 가을밤의 향연 - 뽕뽕다리 추억의 밤 함께하다.



지난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광주방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림 2동 가을밤의 향연 - 뽕뽕다리 추억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올해 5월에 개최한 맛잇들 한마음 축제 이어 맛잇들 마을만의 가을문화제가 마을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김혜선 강사의 재능기부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문화한마당에서 어울림공부방 아이들이 '배 띄워라' 민요 합창 공연을 펼쳤다.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주제로 시민참여형 토론회 개최하다.



각 계 각층의 전문가, 시민문화단체, 지역 예술인, 아시아문화원과 광주시가 참여하여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모색해보기 위한 토론회가 12월 2일(수)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렸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주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당 개관 평가를 통해 전당의 미래에 대한 조망, 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전당과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역의 역할 및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시민참여형 토론회였다.

토론회 좌장은 송진희 호남대 교수가 맡으며, 제 1세션은 이승권 조선대 교수가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이 나섰다. 또한 '전당의 5개원의 평가와 정책 제언'은 정순기 광주시 연극협회 회장, 김기곤 광주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홍 성균관대 교수가, '전당의 조직과 운영'은 김도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시민문화교류위원장, '전당과 지역 문화계와의 연계'는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전당의 접근권 문제'는 유현섭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제 2세션은 천득염 전남대 교수가 '조성사업과 광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일용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각 분야를 대표한 토론자로는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임택 광주시의회 문특위원장,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고미아 위치스 대표이사, 강성욱 광주관광

재단소식

컨벤션뷰로 사무처장, 전고필 전 대인예술시장 감독,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대표,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지역의 입장에서 사고·접근·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향후 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문화단체, 현장의 예술인들과 소통하여 정책으로 묶어서 정부와 광주시가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국언어문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언어문학산책 개최하다.



석천 임억령 선생의 삶과 문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제 2회 한국언어문학산책"이 열렸다.

한국언어문학회(회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와 우리재단이 공동으로 12월 11일(금) 오후 2시 해남문화원 소극장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석천 임억령 선생의 참ற하고 강직한 삶과 시문학 업적을 학술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학적 가치를 정립하여, 선생이 조선의 시문학과 호남문단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의의를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세미나 좌장은 장경현 조선대 교수가 맡았으며, 제 1세션은 광주대 김은수 교수가 '임억령 선생의 생애', 고려대 박종우 교수가 '임억령 선생의 시문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전남대 김신중 교수와 전북대 한창훈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 2세션은 한성대 권혁명 교수가 '임억령 선생과 식명정 시단'을 전남도립대 최한선 교수가 '임억령 선생의 시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림대 이관성 교수와 광주여대 임준성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조직

제 43차 운영위원회 열려



제 43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8일(화) 오후 6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정희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2016년 사업·예산(안), 운영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2016년 사업·예산(안)은 원안, 조직 개편 건은 좀더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기만료 된 운영위원 중 김도일, 진시영, 조덕진 운영위원은 연임키로 하고, 신규 운영위원은 박선정, 류영국, 위주영 씨를 추천하여 다음 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였다.

2015년 제 2차 이사회 및 진흥이사회 연석회의 열려



2015년 이사회 및 진흥이사회 연석회의가 지난 12월 14일(월) 오

회원소식

후 6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백수인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2016년 사업·예산(안), 신규 임원 승인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2016년 사업·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제안된 내용의 보완 전제, 임기만료 임원 중 연임 의사를 피력한 임원 및 신규로 추천된 임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충 임원은 각 의결단위와 임원확대회의 논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으로 하였다.

[회원소식]

김양균 운영위원, 얼쑤의 신명나는 타악뮤지컬 '몽키즈' 선보이다.

신명나는 타악 공연으로 유명한 '얼쑤'가 이번에는 원숭이로 변장해 '년버벌 뮤지컬'을 선보였다.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가 년버벌(non-verbal) 타악뮤지컬 '몽키즈'를 9월 11일 오후 7시 30분과 12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렸다. 년버벌 뮤지컬은 말없이 상징적인 몸짓·소리·음악 등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의 공연이다. 타악뮤지컬 '몽키즈'는 무더위에 지친 원숭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얼쑤는 년버벌 뮤지컬에 '타악'을 더해 새로운 형식의 신명나는 무대를 꾸며졌다. 김양균 얼쑤 대표가 공연 제작감독을 맡고 총연출은 고창길 기획실장, 구성작가는 흥선주 씨가 각각 담당했다.



- <전남일보> 발췌

문병란 민족시인, 재단 전 이사장 타계하다.

9월 25일 향년 80세로 타계한 문병란 감성과 지성으로 민주 통일 노래한 민족시인이자 조선대 명예교수는 '직녀에게'를 작사한 시인으로 유명하다. 화순 출신인 고인은 1961년 조선대 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62년 『현대 문학』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

했다. 1988년에 조선대 국문과 조교수에 임용됐으며 민족문학 작가회의 이사와 5·18 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시집으로는 『죽순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땅의 연가』 등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죽순 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등을 발표하며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문학을 선보였다. 순천고와 광주제일고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나 민주화운동 때문에 해직된 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수배를 당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간행된 시집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다. 군사 독재정권에 맞서 민중과 통일을 노래하는 참여시를 꾸준히 발표했다. 민주화운동에도 투신해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역임했다. 제1회 박인환 시문학상을 비롯해 요산문학상과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1981년 시선집 『땅의 연가』에서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직녀에게'를 발표했으며 가수 김원중 씨가 노래해 널리 알려졌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거던 은하수가 너무 길다'로 시작되는 이 시는 연인의 이별을 갈라진 남북의 현실에 빗대어 통일을 노래한 시로 고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 <광주매일신문>, <연합뉴스> 발췌

김양균 운영위원, 락의로(樂의路) & 미디어아트 개최하다.



회원소식

전통문화연구회 얼쑤에서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락의로(樂의路) & 미디어아트' 공연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1월 21일(토) 오후 3시, 오후 7시, 11월 22일(일) 오후 5시 올렸다. 젊음의 락(Rock)과 한국 특유의 락(樂)이 만난 '락의로'라는 공연은 미디어작가인 박상희씨의 작품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

이이남 재단회원, 고향 담양서 이이남 아트센터 개관하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물관 개막과 함께 죽녹원 내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이남 아트센터가 10월 13일 개관식을 갖고 죽녹원 내 아름다운 자연과 첨단기술, 아트의 콜라보레이션이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이이남 아트센터는 담양출신으로 제 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단독 미술관으로, 기존 죽녹원 생태전시관을 개조해 돔 형태의 2층 건물로 조성됐다. 특히 이이남 아트센터는 미디어아트, 향, 소리, 맛이 조화를 이루는 '감각미술관'을 컨셉으로 관람객들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미술관을 지향한다. 현재 이이남 아트센터는 '목죽도' 등 20여점의 작품을 전시 중인 가운데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다.

- <담양주간신문> 발췌

이이남 재단회원,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뉴욕서 개인전 열다.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이남 작가는 지난 2013년 UN본부 반기문 총장 집무실에



작품 '김홍도 목죽도'를 기증했다. 이같은 기증 사례가 누적돼 오는 12일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 이번 전시에는 '빛의 언어1', '신-우는여자', '크로스오버 쇠라', '목죽도8', '모나리자 폐허',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그리고 게이미야기',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 '벨라스케스 기념사진', '호롱볼 TV', '만화-병풍', '밤샘하는 사람들' 등의 작품이 출품됐다. 동·서양의 고전회화를 디지털로 작업해 당대의 화가들이 느꼈던 감흥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가상의 공간으로 몰입하게 한다.

- <남도일보>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 미국 샌안토니오서 제 7회 루미나리아축제 참가하다.



광주지역 작가인 진시영씨와 정운학씨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야간 종합예술축제인 '제7회 루미나리아 축제'에 특별초대작가로 초청돼 작품을 전시한다. 10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0여 명의 작가가 시각예술, 미술, 공연, 퍼포먼스, 문학,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

회원소식



된다. 루미나리아축제는 2008년부터 매년 샌안토니오시 주최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종합현대예술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진시영 작가는 LED 빛에 한국의 전통무용인 승무, 살풀이 등을 가미해 인간 자체에서 발광하는 순수한 에너지를 표현한 '2011_flow'를, 정운학 작가는 화려한 LED 빛의 변화를 통해 부처의 다양한 미소와 입체적 형상성을 보여주는 '부처 Buddha'를 전시한다.

- <시인의 소리> 발취

민형배 재단회원, 광산구청장 「내일의 권력」 출간, 출판기념회 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내일의 권력」(도서출판 단비)을 출간, 12월 11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었다. 이번 책에 대해 민 구청장은 10일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격변기에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논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의 권력」에서 민 구청장은 "더 좋은 내일을 바란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사회권력을 온전히 세워야 정치권력이 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일의 권력」은 제 1부 권력과 민주주의, 제 2부 공동체의 힘, 제 3부 정당권력과 정치, 제 4부 주권자 권력 등 총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후마니타스출판사 박성훈 대표, 전남대 철학



과 박구용 교수, 그리고 민 구청장이 함께 토론한 "권력은 무엇이고 내일의 권력은 어떠한가"를 좌담의 형식으로 실었다. 민 구청장은 "2년 전에 낸 「자치가 진보다」가 자치 현장의 실천이 어떻게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낸 「내일의 권력」은 자치가 권력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자치가 진보다 2」라고 할 수 있다"며 "2년 뒤에는 「광주의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자치가 진보다 3」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드림> 발취

강혜경 운영위원,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송년 콘서트 열다.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국악과 다양한 춤의 향연을 선보였다.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송년콘서트 '국악, 춤바람나다'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국악의 흥겨운 가락을 바탕으로 탈춤, 선반 사물놀이,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그루브한 라틴댄스부터 젊은 춤꾼들의 패기 넘치는 비보잉댄스까지 들썩들썩하고 흥겨운 송년의 자리로 마련했다. 공연의 피날레는 EDM과 국악의 만남으로 구성된 아이리아의 대표곡 'Brand New Airang'과 전 출연진의 협업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편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는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 요코하마 폐막공연을 비롯해 원코리아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며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아이리아의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공연 'Brand New Airang'을 남겨두고 있다.

- <무등일보> 발취

김종필 회원(힐링아트 평생교육원 대표), 화순 주민극단 레인보우 연출하다.

화순 주민극단 레인보우(단장 박영배) 창단기념 공연이 12월 13일 오후 화순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회원소식



화순 주민극단 레인보우가 힐링아트 평생교육원(대표 김종필, 연출) 등의 도움을 받아 <굿터, 아빠의 청춘>이란 제목으로 펼친 이번 공연은 지역 공연예술 문화의 저변확대와 시민문화예술 향유권 확보를 실현코자 특별히 무료로 마련, 화순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주민극단 레인보우는 지난해 2014년 7월, 연극을 사랑하는 화순군민들이 모여 창단했으며 지난 10월 화순힐링푸드 축제 및 축적원 초청 등 다양한 곳에서 공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더불어 복지관, 요양원 등 공연 관람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 계층에 무료공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천지일보> 발취



진시영 운영위원(미디어아트 작가), 「온고지신(溫故知新)」 전시 총괄하다.

광주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주시 동구와 함께 시온미디어 주관으로 '2015충정미디어산업센터 미디어아트 전시 시범사업'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충장로 5가 95-20번지 상가건물 안팎에서 가졌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진행되었던 이번 전시 시범사업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타이틀로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을 꾀하면서 도시재생을 미디어아트로 해보자는 취지다. 전시는 실내 미디어 전시와 실외 미디어 파사드로 나눠 진행되며 한예종과 중앙대, 서원대 등 8개팀 3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 미디어아트 토크 콘서트는 광주디자인센터와 연계, 협업체 12월 22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 토크는 진시영 예술감독과 학생들이 작품설명 등을 통해 전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전시가 열린 상가건물은 매입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충정미디어 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산업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마무리될 예



정이다. 이 상가건물은 옛 무등장공장 터로 추후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해 새롭게 신축할 지, 증개축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상가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2층이고, 실내에서 보면 3층으로 돼 있으며 뒤 단층 건물까지 포함해 부지가 300평에 이른다.

- <광남일보> 발취

정순기 운영위원(광주시연극협회장), 제 22회 광주예술대상 수상하다.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회장 최규철)는 12월 24일 제 22회 광주 예술문화상 운영 위원회를 열고 예술문화상 대상 등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광주예총 예술대상에는 정순기(광주연극협회 회장), 김재호(한국사진문화예술진흥회 회장)씨가 선정됐다. 특별예술상은 김승호(전통국악양상을 높음 판 대표), 신영은(건축사사무소 사람), 김영철(도서출판서적 대표), 김진웅(연기자)씨가 받는다. 시상식은 12월 29일 오후 4시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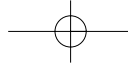
- <광주일보> 발취

깨닫기 위한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기훈 상임이사 빙부상
- 지형원 이사 빙모상
- 최 현 회원 모친상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김정숙(생활공예 디자이너)
- 양태영(공무원)
- 이명란(작가, 빛고을누리단)
- 이문범(조계종 포교사)
- 이종범(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장지원(행복촌 연구소 소장)
- 천득염(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 김나복 변호사
- 김대현 전남대 교수
-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 김병기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상임대표
- 김선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반운영본부 팀장
- 김영주 (사)광주전남CT협회 회장
- 김윤기 전 아트광주 사무국장
- 김하림 조선대 교수
-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 박요주 세무사
- 서순복 조선대 교수
-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 양혜령 치과 의사
- 오건규 화가
-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 이민원 광주대 교수
- 이연수 호남대 교수
- 이철우 전남대 교수
- 정현애 전 광주시의원 부의장
- 지형원 문화통 대표
- 차일현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염낙귀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 위원장 이승권 조선대 교수
- 위 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부로 사무처장
-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교류위원회〉

- 위원장 김도일 문화평론가
- 위 원 강혜경 전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대표
-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 김향득 사진작가
- 박신영 소설가
- 안태기 광주대 교수
-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함께하는 사람들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회장〉

오형근 의사
김경옥 약사

〈진흥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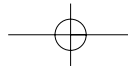
-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김 성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
-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 김용혁 (주)HOL 대표이사
-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 이원형 호남대 교수
- 정병수 남부대 교수
-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 황재익 (주)BbOrigin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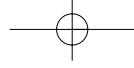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강리정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





편집 후기

“...첫 햇살이 시냇물에 닿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물에게 이렇게 말해
긴 사람아,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새해 아침에는 말없이 시냇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서
...긴 사람아,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그런 다음 물컵으로
만동을 떠서 마시고 싶다. 인디언 체로키 족처럼.

2015 계간 『창』 송년호를 펴낸다.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
지역문화 포럼을 특집기획으로 지상중계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보아야 할, 꼭 생각해 봐야 하는
키워드가 거기 담겨 있기를 기대하면서.

무등산에 올라 백두산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 시대의 시인
故문병란 이사장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문화인 탐구생활을 통해 김옥진 마음 놀이터 대표와
우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물음을 던져 보았다.

광주의 ‘광장’과 하늘의 평안한 문 ‘천안문’ 앞 광장은
어떻게 공간의 의미를 넘어 소통과 만남을 위한
열린마당이 될 것인가?

줄이웁고 올 한해 『창』에 옥고를 주신 재단 안팎의 지혜로운 ‘멘토’
님들의 새해가 더욱 멋진 날들로 이어지시길 기원합니다.

